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장애인으로 '버팀목'회장 좌영희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결례임을 알면서도 이렇듯 서신으로 인사드림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드림은 다름이 아니오라, 여러분과 같은 여성장애인으로서는 회장을 맡고 있는 제가 버팀목회원가입에 대한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인 우리는 결혼과 육아, 학령기자녀들에 대한 진로지도 등 그 외에도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버팀목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녹녹치 않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지역사회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여성장애인의 삶은 지금 보다 훨씬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버팀목은 여성장애인이시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3년 9월 15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자조회 '버팀목'회장 좌영희 올림